

원발성 위 용모상피세포암의 복막파종 1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산부인과학교실², 해부병리학교실³, 재생병원 내과⁴
남승현¹, 배기선¹, 강민숙¹, 이경은¹, 김도연¹, 남은미⁴, 임석아¹, 문혜성², 성소희³, 한운성³, 성주영¹, 이순남¹

배경 : 용모상피세포암은 침습이 빠르고 쉽게 전이되며 주로 임신과 관련되고 자궁안에 국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드물게 임신과 무관하게 원발성으로 폐, 유방, 종격동, 위장관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흔한 발생부위는 위이다. 원발성 위 용모상피세포암은 남자에서 여자보다 발생률이 2.2배로 높고, 예후가 극히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형적인 용모상피세포암에 비해 항암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인다. 저자들은 원발성 위 용모상피세포암의 복막파종으로 발현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7세 여자환자가 7주간의 무월경과 질출혈, 하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고, 6년 전, 5년 전에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GP2). 응급실 내원 당시 검사 소견상 Hb 7.7 g/dL, Hct 22.6%였고 β -HCG가 5,581mIU/mL로 상승되어 있어 자궁외 임신의 추정하에 골반경하 양측 난관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조직검사상 자궁외 임신 소견이 없었고, 외래추적 검사상 혈청 β -HCG가 10,263mIU/mL로 증가되었다. 포상기태로 추정하고 methotrexate 50mg 근주요 치료받으며 1개월간 산부인과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으나 β -HCG가 19,569mIU/mL로 상승하는 등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 임신성 용모상피세포암의 임상적 추정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위종물과 복막파종이 발견되었다. 수술은 자궁과 좌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실질내 병리학적 소견은 음성이었고 표면에 용모상피세포암이 파종된 소견을 나타냈다. 수술 후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대만부에 종물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상 용모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임신과 관련이 없는 위에 발생한 원발성 용모상피세포암이 이미 복막파종된 것으로 확진하고, 항암화학요법을 etoposide 100 mg/m² D1-D3, adriamycin 40 mg/m² D1, cisplatin 60mg/m² D1 으로 현재까지 2차례 시행하였다.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β -HCG가 5,082mIU/mL로 감소하였다가 2차 치료 후 다시 7,985mIU/mL로 증가되었으며 2차 치료 후 시행한 복부단층촬영상 안정병변이다.

최근 폐암의 역학과 임상적 고찰

정수석, 정현식, 이승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내과학 교실

배경 : 최근 폐암의 조직형, 호발부위, 전이상태 등의 변화를 보고자 본원에서 진단된 폐암에 대한 역학과 임상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법** : 1996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년 동안 강북삼성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폐암으로 진단 받은 2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분포, 조직학적 분류, 전이 형태, 생존율 등을 후향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결과 : 성별분포는 남자가 168예(75.6%), 여자가 53예(24.4%)였고, 평균연령은 61.9세였다. 조직학적 병형에 따른 빈도는 선암과 편평상피암이 각각 75예(33.7%)와 63예(28.7%)이었고 그 외에 소세포암 55예(24.7%), 대세포암 7예(3.1%)였다. 흡연자에서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에서 각각 34.8%, 31.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비흡연자 대부분(64.5%)은 선암이었다. 거주지 별로 도시거주자는 선암(36%)이 가장 많았고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순이었고, 비도시 거주자는 소세포암, 편평상피암, 선암순이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병소의 위치는 우측폐가 112예(50.4%)로 좌측(46.8%)보다 약간 많았으며 특히 하엽(32.4%)에서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전이는 전체 환자의 128예(55.3%)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골 55예(24.7%), 뇌 49예(22%)와 폐 33예(14%)였다. 사망한 환자 132예에서 진단 후 사망까지의 평균일수는 294일이었으며 선암의 경우에 평균일수 404일로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에 비해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였다.

결론 : 폐암의 조직형은 선암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 순서였다. 특히 비흡연자, 여자와 도시 거주자에서 선암이 많았고 흡연자에서는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이 많았다. 진단 당시 대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아 폐암의 조기진단, 유발인자 제거 및 치료방법의 개선의 중요성이 요구된다.